

환자 이야기

환자 / 이윤열 부인 방미영님

그날을 기다리며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이 축축이 스며있는 뉴스레터를 읽고 저도 다시금 마음을 추슬러 희망을 가져옵니다. 너무도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린 지난 10년 세월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성실하게 우리 가족을 위하여 생활하던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내렸을 때 그저 멍하니 아무 느낌도 없이 집에까지 왔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그 모두가 아내인 저로 인하여 얻은 병 같아서 무어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우리를 반기는 아이들을 보고 야 그제서 가족이 같이 겪어야 할 고통과 남편의 아픔을 생각하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엄마 아빠의 눈물에 놀라며 울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에게 아빠에 대하여 설명 해 주었습니다. 아빠의 치료를 위하여 엄마 아빠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 이유와 오빠가 엄마 대신에 동생을 잘 보살펴야 하는 것 등등을 설명했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은 잘 받아들였고 아빠의 입원 가방도 아이들이 그 날 저녁에 다 챙겨주었습니다. 다음날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하면서 같은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는 환우들과 그 가족을 보며 힘도 얻고 많은 정보도 알았습니다. 골수이식이 백혈병의 완전한 치유 방법이라는 것을 듣고 남편의 형제 세분이 유전자 검사를 하였지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여 있는 저를 보고 아이들이 자기들도 아빠와 골수가 맞을 수 있다며 초등학교1.4학년의 어린아이들이 병원에 가서 혈액을 채취할 때 말없이 숨죽여 눈물을 감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간 아이들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이들과도 아빠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혈연 골수이식 절차를 거치며 한국골수은행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우리 같은 가족을 위하여 여러분이 위로하여주고 희망을 주시며 활동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후 12월초 남편과 맞는 골수 공여자가 42명이나 있다는 말에 너무도 감사하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남을 위하여 용기 있게 기증의사를 밝힌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저 또한 이제까지 저의 생활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면 베란다에서 아이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는 남편의 힘없는 뒤 모습에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가장의 아픈 슬픔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엔 마음이 따뜻하고 용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우리가족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천사를 기다리며 골수이식의 그 날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2002년 1월 25일 골수를 기증할 분을 애타게 기다리며 이윤열씨의 아내 방미영 올림

※ 편집자 주 : 이윤열님은 현재 첫번째 기증자분께서 기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